

### API's Untold Story: 우리들의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

몇십년전 역사만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태평양계 아시안 (API) 소수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미국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시절 API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의 사람들도 사회인식에 참여해, 인간평등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리에 대해 주장했기 때문에 그 차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이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생겼다. 그들은 바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를 포함한 동성애자들 (LGBTQ)이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 사회에 기본적인 공동체로 인식되고, 자녀를 양육하여 사회 구성원을 배출하며, 사회의 완성을 위해 이바지 하려는 이들의 요구는 그러나 많은 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사회가 외면 하려는 논쟁거리에 왜 굳이 API사람들이 나서서 같은 성의 커플들의 결혼을 지지하고, 감싸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성적취향이 남들과 다르다고, 현재 민권을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 API 커뮤니티가 그들의 피부색깔 때문에 차별을 받았듯이 말이다.

많은 API유권자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유색인종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몇몇은 클린턴 정부 시절 때 일으켜진 영향만을 보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으며, 또 일부는 피부색깔만을 믿고 매케인을 지지한 사람도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은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 뒤에 따를 갑작스러운 변화를 두려워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견고한 API의 사상이나 의지는 지적 할만하다. 전통을 특별히 중요시 하는 API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도 예외는 아니다. 전쟁과 침략이라는 아픈 상처 때문에 혈연의 중요성을 더욱 고집 해올 수밖에 없었던 API사회에게 동성은 물론, 이종족 결혼 또는 입양은 좋지 않은 시선만 자극해 왔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끝까지 우리가 '고유성' 또는 '전통적'인 것들만 주장 해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우리도 다른 것을 무관심하게 처리 하는 방식 때문에 상처를 입었듯이 말이다. 가까운 예로, 4.29폭동의 기억을 되살려 보겠다. 폭동 1년 전 로드니 킹 이라는 이름의 흑인 청년이 백인경찰에 의해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흑인과 백인

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리고 있을 무렵, 1992년3월3일 한인 소유 마켓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할린즈라는 흑인 소녀가 한인 주인에 의해 권총으로 살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인에게 향했던 흑인들의 분노가 한인사회를 향해 표출 되었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왔다. 여기서 우리는 한인들이 문제제기자 또는 피해자 였는지를 따지기 전에, 만약 로드니 킹 사건 후, 우리것만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같은 소수 민족으로써 그들과 같은 편에 서서 모두의 민권을 위해 싸웠다면, 아니 마음만이라도 같이 했다면, 4.29폭동과 같은 결과가 일어 났을지에 대해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나와 달라서 외면하거나 혐오한다면, 이만큼 이기적인 사회가 또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만큼 이들은 상처받고 있다.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강한 반대세력 맞은편에 같이 서서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많은 LGBTQ 그룹들이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개혁을 지지 하는 이유도 이중에 하나 이듯이 말이다.

불과 70년전 API 사람들은 백인과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LA에 위치하고 있는 민족학교에 의하면 도산 안창호의 따님이신 수산 안 께서는 백인과 결혼하기 위해 다른 주에 가서 결혼 신고를 했다고 한다. 당시 백인들 눈에 보이는 API커뮤니티는 현재 LGBTQ 커뮤니티가 오해 받는 것과 같은 잘못된 정보로 가득 했을 것이다.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오로 답하려는 세력도 강력했을 것이다. 이로써 이 소수들은 지금까지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의 타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옛날과 지금과 같이, 법은 정의를 말하였다. 2004년5월17일 메사츄세츠 대법원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커플끼리의 결혼을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메사츄세츠 법원은 “ 동성 커플의 결혼 금지가 이들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있다” 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메사츄즈를 포함한 코네티컷, 아이오와, 그리고 버몬트를 포함한 네 주에서 결혼한 동성커플들에게 이성 기혼자들이라면 누구나 누릴수 있는 사회보장 수당, 재산 문제, 비자문제, 입원시 의료 행위 문제, 납세 및 보험문제등을 가질수 있게 해 주었다. 작년 캘리포니아에서도 주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만의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 하였지만, 이들의 결혼과 법으로 보장된 평등권은, 부모로 변장한 사회의 철저한 통제에 따라 지금 강제로 파경될

지경이다. 2008년 11월 4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8이 52%대 48%로 통과 된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2000년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61%가 동성결혼 반대에 표를 던진 것과 비교해 보면 정치적 기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 발의안 8은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방출했지만, 많은 곳에서 동성 결혼은 무시될 수 없는 평등권과 사생활 보호 침해라는 문제에 해당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동성연애자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해서 얻을 행복. 왜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겠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코 부단하는가? 옆집 순이 어머니에서부터 유학오신 삼촌 그리고 대학교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내 자식까지도 남들과는 다른 성적지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 아직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없듯이, 우리는 API동성연애자들에게서 그들의 사연을 듣지 못한다. 아니, 어쩌면 듣지 않았으면 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게 더 맞는 설명이겠다. 대부분 API동성애자들이 말하길, 주위시선 보다 더욱 걱정 되는 것은 사실을 알리고 난 후에 부모님의 반응 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많은 API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간다. 실제로 UCLA법과 대학의 윌리엄스 연구소에서 2008년 펼쳐친 연구에 의하면 현재 14,570명 이상의 API동성 커플들이 있지만, 이는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 동성애 커플에 비하면 56%나 떨어지는 수치다. 아직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의 보복등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API동성연애자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제일 가까운 가족의 반응이 무서워 자기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 가야 한다는 점을 보았을때, API커뮤니티의 옹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몇 안되는 단체들이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이 중 민족학교는 LA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이민자들에게 큰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데 동성커플의 결혼을 지지한다 해서 한인사회의 이목이 되고 있다. 아무리 교회에서 후원 자금 공급을 중단받고, 밤늦게 까지, 심지어 주말에도 항의 전화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성커플의 보장된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 엄연한 가정이 있고, 집에서 기다리는 예쁜 아이들 또는 잘생긴 남자친구까지 있을텐데 이들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 API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모임에 참석한다고 한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도 민권을 소중히 여기는데 내 이

웃, 내 친척, 내 자식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리랴? 남들이 아무리 흉봐도 제일 아끼고, 한 인격체로써 존중 해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게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

API커뮤니티는 현재 인구수로서나 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정치적 참여는 여전히 타 인종들보다 뒤쳐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민발의안8 캠페인을 통해 이들의 큰 정치적인 참여를 목격했다.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많은 이들이 주민발의안8이라는 동성결혼 반대를 지지했지만, API커뮤니티도 막강한 운동세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 에세이를 마무리 지으며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동성문제를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자는 것이다. 법과 같이 종교는 성경구절의 해석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관점으로 둔다면 그 주장은 끝이 없을 것이다. 더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종교를 믿고 있음을 감안했을때 그들이 받을 축복과 사랑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논의 할 것이 못 될것으로 본다. 그래서 나는 이 에세이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신, 소수민족 차별의 역사와 동성결혼 문제를 민권의 문제 연결 시키려 노력했다. 우리 API 는 모습, 언어, 문화, 종교, 이민사등이 모두 다르지만 서로 돕고 사려는 의지가 크다. 그리하여 변화하는 역사안에 살고있는 우리는 결혼을 전통 관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른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며, 제도적인 시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는 관점만 고집했다간, 우리는 언제든지 비극한 상황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동성혼이 점차 인정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동성연애자나 그들의 결혼을 부정 또는 외면 하려 하지말고, 오히려 우리와 다른점을 화합하려 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살기 원하는 튼튼한 사회로 발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많은 API 커뮤니티가 불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듯이, 많은 API 동성애 커플은 사회에 잘 들어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들은 외각진 곳에서 더 외로이 소외 되어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라는 전제하에 받아들이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 소수일지라도 이들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법과 사회가 이들을 차별 대우 하지 못하게 우리 API 커뮤니티가 이들의 민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